

거리두기 해제 첫 명절...선물 씹씹이 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올해 추석 귀성객이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명절 선물 고객들의 씹씹이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점포가 지난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벌인 명절 선물 사전 예약판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나 증가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세는 고물가 속에서 할인율과 사은 혜택이 몰린 사전 예약판매 기간에 고객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마트의 올 추석 사전 예약 기간은 총 42일로, 지난해 추석(33일)보다 기간을 9일 확대했다. 이는 추석뿐 아니라 역대 명절 중 가장 긴 사전예약기간이었다.

이 기간 구매 금액대별로 매출을 보면 10만~20만원 미만 선물 매출 증가율이 '세 자릿수'를 나타내며 가장 높았다.

10만~20만원 미만 매출은 전년보다 116.6%



증가했다. 이어 ▲5만~10만원 미만 109.9% ▲3만원 미만 57.5% ▲20만원 이상 45.6% ▲5만원 미만 39.8%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지역 이마트에서는 배와 사과 등 햇과일을 섞어 넣은 선물 꾸러미가 주요 인기 신선식품 선물로 꼽힌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피코크' 브랜드의 한우(갈비) 세트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이마트 추석 사전예약 매출 46.3% 증가

10만~20만원 미만 선물 증가율 116.6% 최고

광주신세계 "과일 10만·축수산 18만원대 인기"

롯데백 광주점, 고급 '가심비' 물량 40% 늘려

가공식품에서는 전통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는 햄·참치 통조림과 즉석커피 묶음이 잘 나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추석 선물 본 판매를 벌이고 있는 광주신세계는 이달 4일까지 매출이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추석 선물 고객의 경우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가 품목별로 2만~5만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객들이 과일 부문에서는 10만원대 선물을, 축산·수산

에서는 18만원대 상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선물 판매를 상품군별로 보면 축산 매출이 전년보다 46.0%나 뛰었다.

과일·채소(청과) 20.0%, 홍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8.0%, 와인 1.4% 등 다른 품목도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단 수산물 매출은 전년보다 5.0% 감소했다.

7일까지 추석 선물 본 판매를 진행하는 광주신

세계는 20만원 이하 상품을 지난 명절보다 30% 이상 늘렸다. 영광 법성포 참굴비와 장흥 정남진 백하고 꾸러미가 대표 상품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명절 판매를 시작한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선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선물을 받는 이의 취향과 심리적 만족도를 높인 '가심비' 선물 물량을 지난 설 명절보다 40% 이상 늘렸다.

광주점 선물 매출 가운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 상품군은 굴비(46.0%)를 포함한 수산물(76%)과 차(茶·70%), 더덕·수삼(42%), 말린 과일(14%) 등이 있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8일까지 추석 본 판매를 진행한다. 40만원대 함평 천지한우와 시세 기준 흑산도 홍어, 20만원대 정남진 백하고 등 지역 '명품' 특산물을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찬성

공정거래 환경 조성·상생협력 문화 조성 등 이유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만 19세~2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29.2%)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 91.1%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

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 대상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94.5%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간 선의의 자율에 맡기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장애인 보호시설에 위문품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시 북구 소재 장애인 재활치료 및 보호시설 '예수 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 무등 시장에서 구매한 쌀과 과일 등 위문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영석 청장은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모든 관계자와 이웃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이밖에도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소외계층 가정 등을 방문해 소정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매년 명절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삼성그룹이 6일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20곳이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직무 적합성검사(9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10월), 면접(11월) 순으로 진행된다.

삼성도 이번에도 GSAT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만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부터 채용 규모를 더 확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8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실제 인력 수요는 연간 약 1만명 수준이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규모를 20% 더 늘린 것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외국인근로자 한국어·취창업 훈련과정 지원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귀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와 취업·창업훈련 과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중 귀국예정자(3년 이상 재고용, 재입국특례, 특별재입국 근로자)의 귀국 후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것으로, 한국어 과정 및 취업·창업훈련과정을 지원한다.

한국어 과정은 토픽(TOPIK) 3급 자격시험을 목표로 오는 18부터 12월25일까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참여 교육생에게는 간식과 교통비가 제공된다.

또 교육수료자 전원에게 특별한한국어시험 가점 5점과 응시수수료(28달러) 면제 혜택이 있고, 수료생 중 토픽 3급 이상 자격시험 취득자는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20점과 응시수수료(28달러)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취·창업훈련 과정은 재고용·한국어·취·창업훈련 과정으로 호남직업전문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훈련을 실시하며, 재직외국인근로자인 경우 광주중장비학원을 통해 골삭기운전·지게차운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전화(062-970-1752-4)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0.02(+6.34)
↑ 코스닥	779.46(+8.03)
↑ 금리(국고채 3년)	3.682(+0.066)
↑ 환율(USD)	1371.70(+0.30)



MZ 세대 골프 패션 어때요 광주시신세계 직원들이 신관(지하 1층)에 새로 문 연 '플레이블' 임시매장에서 MZ 세대 여성 골퍼들을 겨냥한 다양한 스포츠 의류·용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22일까지 운영하며 20% 할인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창립 54주년 연 최고 13.2% '행운적금' 출시

번호 6개 맞으면 10%p 우대

광주은행은 창립 54주년을 맞아 최고 연 13.2% 금리를 제공하는 '행운적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 추첨을 통해 배정된 '행운번호' 6개가 맞으면 연 10%포인트 금리를 더 주는 것이 특징이다.

행운적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APP) 또는 모바일 웹

뱅킹을 이용해 가입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12개월 정액 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이며 최소 가입금액 5만원 이상으로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광주은행 창립 54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적금인 만큼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3월12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배정한 행운번호를 추첨(28회), 총 540명에게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연 3.20%(자유적립식 연 2.90%)이다.

가입 방식에 따라 행운번호에 당첨되면 연 12.9%에서 13.2%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와 스마트뱅킹,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훈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광주은행의 54년 역사를 함께한 지역민과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행운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최신 동향과 생활상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